

ISSUE NO.1

SEOUL MADE



서울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99+1

SEOUL
DOCUMENTARY
MAGAZINE

FEBRUARY 2020

ISSN 2713-4571 W12,000



9 772713 457006

뱅자맹 주아노는 서울을 떠날 생각이 없다

홍익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프랑스인서울사람 #동네의시대
#예전서울은정말매력있었지
#서울에서보낸25년 #한국을알리다

“25년 전 8월 말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때는 프랑스에서도 군대에 가야 했는데, 해외 파견근무 지원을 했더니 통보장이 와서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삼성도 한류도 없던 때잖아요. 스물다섯 살 청년이 군대 때문에 오고 싶은 나라는 아니었죠. 그런데 2년 복무를 하고 나니 이 나라를 좀 더 이해하고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홍대에서 4~5년 회화를 가르치다, 원하는 길이 아니었기에 이태원에서 ‘르생텍스’라는 프랑스 레스토랑을 15년 동안 운영했어요. 그 사이 프랑스에서 ‘라틀리에 데 카이에’라는 출판사를 차리고, 한국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은 홍대에서 원래 전공과 가까운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제가 처음 왔을 때 서울은 정말 매력 없는 도시였어요. 시끄럽고, 비싸고, 보행자로 살기 너무 불편했어요. 커피숍이나 레스토랑도 없었죠. 홍대에 첫 번째 커피숍이 생겼을 때를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예요. 계속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같은 사건들이 터지니까 외국인으로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다 서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태원을 참 중

아했는데, 재미있는 갤러리, 바, 레스토랑이 들어선 대안적인 동네였죠. 그전까진 명동, 이태원, 인사동 외에는 문화적인 사막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네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는 이곳도 자동도 너무 좋은 동네고요. 1000만 명이 사는 수도에서, 매일 밤 집에 가면서 산의 윤곽을 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서울에서도 콘크리트 밖에 없는 아파트촌에 살았다면 달랐을 거예요.

서울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시민 참여나 공동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최근에 지역 주민위원회에 참여했다가 많이 실망했어요. 다른 수도들을 따라 이런 정책을 만들긴 했는데 형식만 따라했을 뿐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더 성실하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동체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파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 그리는 건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는 문화입니다. 한국사회가 정도 많고 집단을 중시한다지만 서울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너무 심하고, 서로 무시하잖아요. 공동체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서울시 명예시민이 됐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권위나 정당성을 주지만, 실제 시민권은 아닙니다(웃음). 최근 신설된 이종국적 취득에 도전해 보려고 해요. 투표권을 갖고 이 나라에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거든요. 내 인생은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가끔 인생에선 어떤 게 결정이고 어떤 게 운명인지 분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서울을 떠날 생각이 없어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25년을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서울의 가치는? 다양성, 산, 계곡, 고속도로, 시끄럽지만 조용하고 오래되거나 새로운 동네가 모두 있는 곳.

